

일단 저희 멘토님께서는 SI업체에서 일하시기에 개발에 대해 여러 자문을 구할 수 있었고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. 취업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, 전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, 관리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다른 멘토링에서는 멘티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공이었기에 주로 공통 분모인 보다 취업에 치중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 멘토링에서는 같은 분야의 전공을 한 학생들만 모여있었기에 취업 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cs를 현업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말씀해주셔서 저의 진로의 방향을 잡는 데 한가닥의 빛줄기가 되어주셨습니다.

또한, 저의 최종 진로 분야인 xr에 대해 현업에서의 시장성 등 바로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보았을 때 아주 상세히 말씀해주셨으며, 추가적으로 xr에 관한 발표를 준비해주셔서 추후 저의 꿈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.

본 이미지는 6월 30일 멘토링 중 한 부분으로, 비단 취업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유용한 도서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사회에 나갈 때 꼭 필요한, 하지만 쉽게 알긴 어려운 진주같은 말씀들을 멘토링을 빌미로 제공해주셨습니다.

멘토링이 진행될 때마다 멘토님의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고,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으로부터 기반하였다고 생각하니 더 와닿은 부분들도 많았습니다. 이 과정에서 '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자'라는 효율적인 생각에 종착할 수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.



고나연 이웃집나йки님의 게시글 더보기 >

❤️ 좋아요 1    💬 댓글 0

블로그/카페 공유 주소 공유 링크  
[설정]으로 이동하여 Windows

이웃집나йки팀 >

## [활동 후기] 이웃집나йки팀\_2차 활동후기\_고나연



고나연 이웃집나йки 멘티   
 2023.11.08. 11:55 조회 9

💬 댓글 0    URL 복사

~23.10.28

드디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아쉬운 취업 탐색 멘토리 활동이 무사히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. 기간에 비해 오프라인으로 직접 contact하는 시간은 현저히 적었지만,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볼 수 있어 좋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. 이번 후기는 마지막인만큼, 전반적인 활동 및 소감 등을 중심으로 기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시험기간을 지나서 취업 준비, 그 밖에 다른 스터디들, 프로젝트 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멘토링에 대해 깊게 생각할 기회가 별로 없었으나 지금 이 후기를 쓰면서 하나하나 돌아보면, 주로 멘토님께서 도움이 될만한 도서 추천이나 여러 사이트 추천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방식이 주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제가 따로 저희 전담 멘토님이신 '김현환'멘토님께 제 관심분야인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얻는 과정에서 단순히 말씀으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따로 그 세션을 준비해주신 게 감정적으로도, 실질적으로도 얻을 것이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.

또한, 멘티들의 현재 역량, 앞으로의 계획, 보완점 등을 swot과 같은 양식을 통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좋았습니다. 전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, 그렇기에 더욱 자유로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이었습니다.

다만, 그와 동시에 특정 기업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소 모호한 부분도 존재하였습니다. 이러한 점은 추후의 멘토링에서 본인의 목표 기업을 정하고 그에 맞게 세션을 준비하는 것도 개선점이라 생각합니다.

Windows 정품 인증  
[설정]으로 이동하여 Win